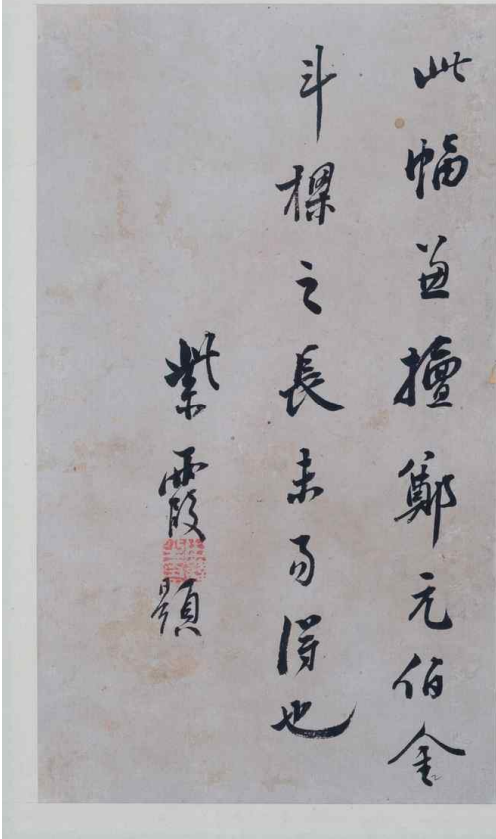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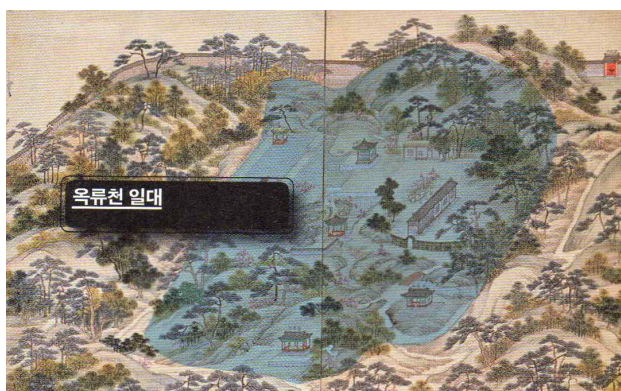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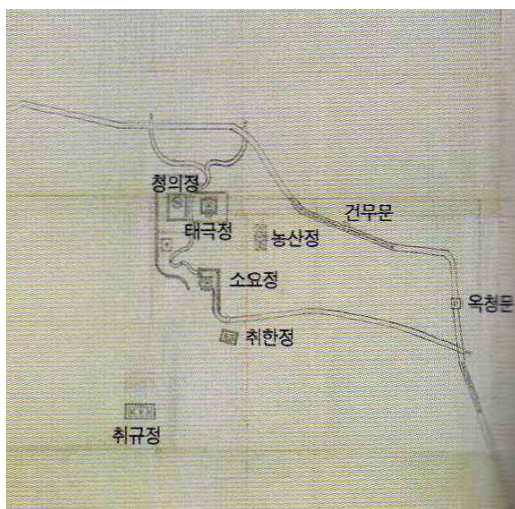
KAN Auction 제1회 경매도록(인쇄물) 내용 정오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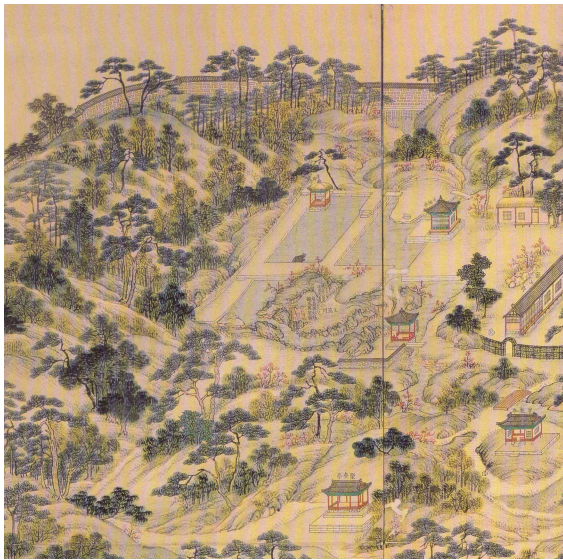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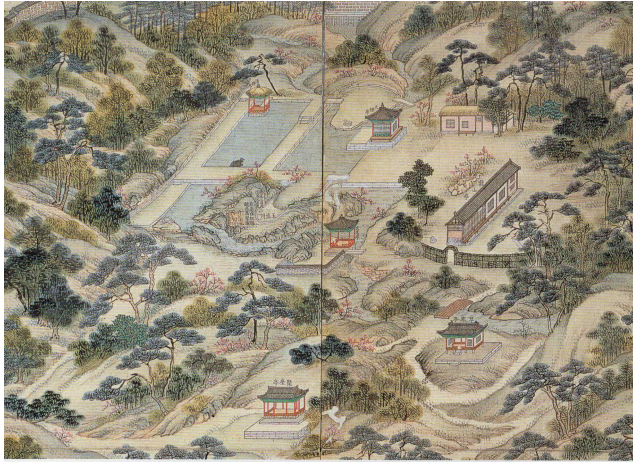
Lot. 042 불염재 김희겸 不染齋 金喜謙의

<청풍계 淸風溪>를 <창덕궁 후원 옥류천 풍경 昌德宮 後苑 玉流川 風景>으로 정정합니다.

쪽수(p)	정(~으로)	오(~에서)	비고
	<p>042</p> <p>불염재 김희겸 不染齋 金喜謙, ?-1763이후 화 자하 신위 紫霞 申緯, 1769-1845 제</p> <p>창덕궁 후원 옥류천 풍경 昌德宮 後苑 玉流川 風景 종이에 수묵담채 · 먹 화 24.3×17.5cm, 제 24.3×14cm 紫霞자하/ 不染子불염자, 中益중익 액자/ 종이상자 귀환미술품(일본) ₩ 20,000,000-40,000,000</p> <p>此幅 兼擅鄭元伯金斗樑之長 未易得也 紫霞題 이 그림은 정원백(검재 정선 謙齋 鄭散, 1676-1759)과 김두량(남리 김두량 南里 金斗樑, 1696-1763)의 장점을 함께 갖고 있는 작품으 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자하가 제하다.</p>	<p>042</p> <p>불염재 김희겸 不染齋 金喜謙, ?-1763이후 화 자하 신위 紫霞 申緯, 1769-1845 제</p> <p>청풍계 淸風溪 종이에 수묵담채 · 먹 화 24.3×17.5cm, 제 24.3×14cm 紫霞자하/ 不染子불염자, 中益중익 액자/ 종이상자 귀환미술품(일본) ₩ 20,000,000-40,000,000</p> <p>此幅 兼擅鄭元伯金斗樑之長 未易得也 紫霞題 이 그림은 정원백(검재 정선 謙齋 鄭散, 1676-1759)과 김두량(남리 김두량 南里 金斗樑, 1696-1763)의 장점을 함께 갖고 있는 작품으 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자하가 제하다.</p>	
p.57	<div>   </div>		

이 그림은 1824년에서 1830년 사이에 ‘창덕궁昌德宮’을 그린 <동궐도東闕圖> 제5첩 제1면과 제6첩 제1면에 걸쳐 있는 후원後苑(일명 비원祕苑) 서쪽의 일부 풍경을 그린 것으로, 산 위 왼쪽 소문과 오른쪽 건무문建武門 서쪽 아래 소요암逍遙巖을 깎아 유상곡수 流觴曲水의 물길을 만든 옥류천玉流川을 따라 ‘청의정淸漪亭’, ‘태극정太極亭’, ‘소요정逍遙亭’, ‘취한정聚寒亭’ 등을 그린 작품이다. 후원이기는 하지만 궁궐 내부의 실경實景을 그린 작품은 궁중행사도와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된 경복궁을 멀리서 담은 겸재 정선 謙齋 鄭敼, 1676-1759의 <경복궁 景福宮>, <삼승조망 三勝眺望>, <은암동록 隱巖東麓>, 아침에 창덕궁 앞에 안개가 낀 풍경을 그린 담죽 강희언, 澹拙 姜熙彦 1710-1784의 <북궐조무 北闕朝霧>를 제외하고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그림에서처럼 ‘소요암’에는 인조대왕의 어필 ‘옥류천’과 이 일대의 풍광을 읊은 숙종대왕의 오언절구가 새겨져 있으며, 궁궐 내부의 실경을 그렸다는 회화사적 의미와 더불어 <동궐도> 제작 이전 창덕궁 후원의 일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작품이다.





*작품 판단 오류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161210수정